

S#1 택시 안 / 새벽

차가운 새벽녘 거리. 사람들이 없는 거리는 공허하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이 보일 때 줌 카메라 패닝. 차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수진(16,여). 바람에 수진의 턱 끝에서 나풀대는 단발머리. 다시 수진이 보고 있는 차 밖 풍경.

S#2 길거리 / 낮

잔뜩 상기 돼 걸어 가는 수진. 담배를 피는 무리들에게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신발에 담배뺨을 지진다. 잔뜩 혈어 있는 신발에 생긴 담배뺨. 어이없어 하는 아이들. 수진은 그들을 뒤로 지고 상기된 채 돌아간다.

S#3 수진의 집 안 현관문 / 오후

신발끈을 풀고 있는 수진의 손. 신발을 벗으며 엄마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뒤로 보이는 나갈 준비에 분주한 엄마.

수진: 길에 가다가 붙잡혔어. 신발 보고 뭐라하면서 줘보라 길래 줬더니 담배뺨 났어.

수진은 엄마를 본다. 수진의 말을 듣기는 한 건지 여전히 분주한 엄마. 신발장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신경질적인 한숨. 엄마를 노려보는 수진.

수진: 엄마 나 죽어야 쳐다 볼래!

엄마: (그제야 신경질 적으로) 맨날 뭐 빨아먹기나 할 생각이지.

수진: (그런 엄마의 말에 감정을 한 번 억누르곤 치기어린 눈으로) ...엄마. 나 신발 사줘.

벗은 수진의 신발을 낚아채 내동댕이치는 엄마. 엄마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 듯 아차하며 멈칫한다. 엄마를 노려보는 수진의 얼굴. 엄마는 다시 제 신을 신는다. 엄마의 신발도 혈어 있다. 욱 내지른게 내심 미안한지 신발을 흘깃 보며 말하는 엄마.

엄마: 그렇게 필요하면 내 신발 신던가.

그 말을 남긴 채로 나가버리는 엄마. 신발장에 있는 엄마의 신발들. 수진은 화가 나 엄마를 뒤쫓아간다. 그러나 엄마가 모는 택시는 이미 저 멀리 떠나고, 수진은 떠나가는 택시에 신발을 던진다. 바닥에 나뒹구는 신발.

Title in. 현 신

S#4 노래방 / 저녁

술을 마시고 있는 아이들. 수진은 어색하게 그 자리에 껴 있다. 즐겁게 노는 아이들 사이에 혼자 동떨어져 보인다. 서툴게 담배 곁에서 담배를 뽑아 불을 붙이는 수진. 수진은 담

배를 몇 입 빨더니 헛기침을 한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수진. 수진은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 껍과 술 병을 모은다. 사진을 찍는 수진. 수진의 일방적인 채팅만 가득 찬 엄마와의 채팅 방. 한참 고민하던 수진은 엄마에게 술담배 사진을 찍어 보낸다. 곧 안읽음 표시가 사라지지만 답은 없다. 답이 없는 채팅 방에 화가 나 휴대폰을 얹어 책상 위에 올린 수진. 수진은 포기한 듯 일부러 중앙에서 놓고 있는 아이들에게 걸어간다. 엄마의 신발을 신고 있는 수진. 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질질 끌고 가는 수진의 걸음걸이. 수진은 춤추며 놓고 있는 무리에 어색하게 꺼 있다.

S#5 집 / 밤

집에 들어온 수진. 수진은 신발을 벗으며 엄마에게 다가간다.

수진: 왜 답장 안 했어?

현관문에 널브러진 낡은 신발. 엄마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엄마를 쫓아가며 말하는 수진.

수진: 사진 봤잖아. 왜 답장 안했냐고.

욱하는 성질을 꼭 억눌러 눈을 꼭 감았다 뜨며 제 할 일을 하는 엄마. 엄마는 자려 한다. 답이 없는 엄마에게 수진은 묻는다.

수진: 딸이 그런 사진을 보냈는데 신경도 안 쓰여?

엄마는 더이상 화를 못 참고 수진에게 몸을 돌려 앉으며 소리친다.

엄마: 나야 말로 묻자. 넌 대체 애가 왜!!!

손찌검을 하려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행동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수진과 손을 들고 멈춘 엄마. 순간 수진의 눈빛이 독하게 변한다. 앞머리를 까 제 흉터를 보여주는 수진. 수진은 엄마의 멈춘 손을 잡아 제 흉터에 가져다 댄다. 그러자 흔들리는 엄마의 눈빛.

엄마: 못된 년.

엄마는 다시 눕는다. 한동안 멈춰 있는 엄마의 뒷모습. 엄마가 입을 뗀다.

엄마: 넌 날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지.따로 살자. 나가 살아 너.

독해 보이던 수진의 얼굴이 멍하게 바뀌어 굳는다. 차가운 새벽녘의 빛이 가득 찬 반지하 방, 그대로 굳어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수진과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 차가운 방 안, 그 둘에게만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건물의 붉은 조명이 묻어 있다.

S#6 놀이터 / 밤

술을 마시는 아이들, 이번엔 수진도 훌쩍훌쩍 술을 마신다.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이는 수진. 수진과 다르게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 잠시 웅성대는 무리들. 무리의 시선이 수진에게 쫓힌다.

친구1: 야 넌 또 표정이 왜 그러냐?

친구의 말에 그를 바라보는 수진. 손에 들린 휴대폰 채팅 창엔 엄마가 보낸 씬터 주소만이 띄워져 있다. 여전히 표정이 안 좋은 수진.

친구2: (비웃으며) 분위기 좇창내지 말고 꺼져.

일순간에 변해버린 수진을 바라보는 무리의 태도, 그리고 비웃으며 사납게 쏘아대는 말들. 수진은 친구들의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개를 젓힌 수진은 술기운이 올라왔는지 씩 웃는다. 히죽 웃는 수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슬퍼 보이는 수진의 눈. 자리에서 일어난다.

S#7 수진의 집 / 밤

술에 취해 비틀비틀 집으로 들어오는 수진. 수진이 바닥에 드러누워 엄마를 부른다.

수진: 엄마!! 엄마!!

수진의 부름에도 엄마는 답이 없다. 그러자 엄마를 더 부르는 수진.

수진: 엄마!!!

그제야 방에서 엄마가 나온다. 드러누워 있는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엄마. 수진은 슬쩍 엄마에게 몸을 붙인다.

수진: 이제 나 나가 살아? 따로 살자고?

히죽대던 수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해진다. 엄마를 바라보는 수진.

수진: 난 엄마가 존나 싫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은 엄마에게 꽃다발을 꺼내 준다. 어디선가 북- 뿍아온 듯 흩더미가 잔뜩 묻은 뿌리 달린 다발의 꽃. 엄마는 수진의 갑작스런 행동이 이해도 안 가고 당황스럽다. 엄마가 내려놔 바닥에 방치 되어 있는 꽃다발. 어색하게 수진을 안은 듯한 엄마, 그럼에도 그 꽃다발은 엄마의 곁에 놓여있다.

S#8 수진의 집 / 낮

빙글빙글 도는 천장.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수진의 얼굴. 초점이 잡히지 않던 눈에 점점 초점이 들어온다. 벌떡 일어나 앉는다.

Cut to

미적미적 방에서 나오는 수진. 식탁 위에는 조출한 밥이 차려져 있다. 수진 놀란다.

Cut to

밥을 먹고 있는 수진, 가만히 있는 엄마. 둘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가 어색해 보인다. 수진은 이내 기분이 좋은 듯 우적우적 밥을 먹기 시작한다. 순간, 고개를 돌린 수진의 시선 끝에 씬터 입소문이 보인다. 얼굴에 번져 있던 웃음기가 사라진다. 표정이 굳은 수진. 수진이 씬터 입소문을 꺼내 든다. 미동 없이 밥을 먹는 엄마. 굳은 표정으로 씬터 입소문을 손에 쥐고 엄마를 바라보는 수진.

수진: 이게 뭐야? 다 풀린 거 아니었어?

엄마: (단호하게) 따로 살자고 했잖아.

수진: (어이없다는 듯이) 같이 있자고 말했잖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나 엄마 딸이잖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엄마. 잠깐의 고민 끝에 예민하게 말을 잇는다.

엄마: 난 너 엄마여서 밥도 주고, 잘 곳도 줬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수진: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잖아. 엄마가 나 낳았어. 내가 선택 한 적 없잖아. 낳았으면 사랑해줘야 하는 거잖아!

엄마: 나는? 내가 너 선택해서 낳았어? 내가 너 같은 거 원했겠냐고!

잔뜩 흥분한 둘. 수진은 차갑게 식어 증오에 가득 차 입을 뗀다.

수진: 엄마는 날 사랑해본 적이 없어.

수진이 차갑게 돌아 나선다. 흥분해 거칠게 숨을 몰아 쉬는 엄마.

S#9 길거리 / 밤

휴대폰 속 택시 배차를 연신 넘기고 있는 손.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빨강게 상기되어 있는 수진의 코와 나오는 입김. 배차 화면에 떠있는 엄마 사진을 보고 그제야 멈춘 수진의

손은 배차 확정을 누른다.

S#10 엄마의 택시 안 / 밤

택시 안, 백미러에 걸린 수진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 그제야 보이는 수진. 뚝 단발에 옛된 얼굴을 하고는 남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다. 백미러로 보이는 엄마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내 기가 찬 듯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는 엄마. 엄마는 수진을 뵈히 본다. 그런 엄마의 표정이 마음에 든 수진은 남자에게 더 스킨십을 한다. 그런 수진의 얼굴.

v.o 수진: 여기서 세워주세요.

다시 택시 안, 차가 끼익-. 급정거 한다. 남성이 카드를 내민다. 뒤를 돌아 수진만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남성은 안중에도 없다.

남성: 저기요. 기사님..

엄마와 수진의 계속 되는 신경전. 이내 엄마가 날카롭게 카드를 낚아채 결재를 한다. 택시를 나서는 수진.

S#11 모텔 방 / 밤

모텔방에 앉아 있는 수진.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 뜯다 이내 결의에 찬 표정.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는 쭈뼛쭈뼛 대며 지폐를 꺼낸다.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던 수진은 자리를 박찬다.

수진: 나 안 해. 갈래요.

남성: 가..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해. 네가 하자고 불러 낸 거잖아.

문의 잠금 레버를 풀고 나가려는 수진. 남자가 붙잡는다.

남성: 네가 하자고 했잖아. 아프게 안 할게.

그 둘이 몸싸움을 벌인다.

수진: 놔. 니 같은 씨발런이랑은 못하겠다니깐?

남성: 니가 하자며. 니가 하자고 그랬잖아.

한참 된 몸싸움 중 수진이 구석이 나가 떨어져 쳐 박힌다. 들어오지 않는 엄마에 다 포기한 듯 수진은 헛웃음을 치며 눈을 감는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

엄마: (소리치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수진은 목적을 달성한 듯 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표정을 지을 줄 모르는 수진. 몸싸움에 신발이 벗겨져 맨발로 쳐 박혀 있다. 남성에게 달려드는 엄마를 바라보는 수진. 수진에게서 남자를 때 놓는 엄마.

엄마: 경찰 불렀어. 그러니까 빨리 꺼져 개새끼야.

엄마가 소리치자 옥지거리를 내뺀 후 도망치는 남자. 여전히 구석에 쳐 박혀 엉망이 된 몰골로 엄마를 바라보는 수진. 맨발이 된 한 쪽 발. 까진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흉터. 수진이 흉터를 내밀던 그때처럼 흔들리는 엄마의 두 눈.

Cut to

엄마와 딸이 침대가 나란히 앉아있다. 거센 몸싸움에 엄마와 수진 둘 다 신발이 한 짝씩 벗겨져 있다. 담배빵이 난 딸의 신발을 신은 엄마와 엄마의 신발을 신은 딸. 둘 다 맞지 않는 신발이다. 무거운 공기만이 흐르는 둘 사이.

엄마: (딸의 신발을 보며) 이제 이걸 버리자.

수진: ...난?

엄마: ...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 떨어져 있자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될 때 까지.

S#12 엄마의 택시 안 / 새벽

차가운 새벽녘 해가 떠오르자 점점 붉은 빛이 묻는 거리 풍경, 드문 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블루 아워와 어우러져 풍경과 함께 지나간다.

v.o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나 둘 거리에 사람들이 나온다. 차 속의 수진, 그제야 아이처럼 울기 시작한다.

Cut to

바람에 턱 끝에서 나풀대는 수진의 단발머리. 다시 수진이 보고 있는 차 밖 풍경.

S#13 수진의 집 / 낮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수진의 집 현관. 엄마의 손이 수진에게 줄 수진의 새 신발을 꺼내 놓는다.